

익산시,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다문화 가족·1700여 외국인 근로자에 행정편의 제공 체불임금 해소·인권교육·한국어교육 등 원스톱서비스

익산시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하는 등 편의 도모에 나서 주목된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외국인 이주자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통합·연계를 통한 서비스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익산역 4층에 입주하게 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외국인 체류자격 신고와 고용허가, 체불임금해소, 인권교육, 통번역,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이해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센터는 익산시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인력을 파견해 다문화가족 등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 센터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활용, 11월 이 공간의 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또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코레일과 임대료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코레일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매년 20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당초 시는 공유시설 활용을 고민했으나 접근성, 공유시설의 부재, 이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익산역 유휴공간을 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이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면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17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원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과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며 "센터가 개소하면 모든 행정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지난 12일 국회를 찾은 구충곤 화순군수가 서삼석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구충곤 화순군수, 국회 방문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구충곤 화순군수와 실·과장들이 내년 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구 군수 등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서삼석, 정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지역 현안사업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구 군수는 의료연계형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비 증액을 건의했다. 그동안 화순군에서는 2019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국비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4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예산반영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정부예산안으로 신규사업 27건 604억원, 계속사업 53건 668억원 등 총 1272억원이 반영됐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손금주 의원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도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하자"는 공조 체제를 마련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열심히 발품을 팔고,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고창쌀 브랜드화 심포지엄. 고창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육종전문가,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쌀유통전문가, 고창군 벼 재배농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연안바다목장 조성 2022년까지 30억원 투입

고창군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15일까지 진행되는 적지 조사를 통해 주꾸미 성육장 조성과 백합 등 패류 치패 종자 방류에 나선다. 군은 주꾸미 성육장 조성을 위해 지난 5일 해리면 광승리 해역일원에 인공어초와 돌담대 각 59기를 해상에 투하했다. <사진> 또 적지 조사가 끝나는 15일 이후 갯벌 자원 패류 치패 종자를 방류할 방침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영암군 청소년대잔치 성료...지역 20개팀 끼·재능 발휘

영암군은 지난 10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제13회 영암군 청소년 대잔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에서는 수능 이후 고3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찾아가는 상담 아웃리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전북도, 농가 안정적 판로 보장 힘쓴다

농가 1500여호 '영농조합법인 전북친환경사업단' 발족 시장교섭력 확보·경쟁력 향상 광역단위 산지 조직 육성

전북도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마련과 시장교섭력 확보,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광역 단위의 산지조직을 육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은 산지조직과 유통이 체계화되지 못해 판매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대형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도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규모화와

조직화 추진으로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도내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업인 1500여 호(전체 인증농가 중 31%)가 참여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시·군 단위 13개 농업법인이 4억6600만원을 출자, (사)전라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산하에 사업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 전북친

환경연합사업단'을 설립했다. 이번 사업단 설립에 따라 총 73개 품목에 대해 안정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13개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시·군·간과 부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정과 소비처 추가 발굴 등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또 농식품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산지 조직화, 작부체계구축, 유통시스템구축 등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조직화(7500만원), 산지조직 및 생산관리(8억6500만원), 유통물류시스템 구축(5억3200만원), 마케팅 및 홍보(5억2800만

원) 등 4개 분야에 투입된다. 도는 내년 말까지 계약재배농가 650호, 광역단위 출하회 10품목, 매출액 240억원을 달성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정착과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지조직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 국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선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이동국의 축구인생 이야기 듣고 국악도 감상하고

22일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서 펼쳐놓는다. 이동국은 필드플레이어 역대 최다인 502경기 출장과 K리그 통산 최다인 215골 기록을 보유한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이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국악그룹 '이상'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음악을 선사한다. 무료 공연이며 예약은 민속국악원(063-620-2324)으로 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1~2년 안에 대박납니다. 투자가치 최고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6000만원,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